

홈 > 뉴스 > 기획 > 문화유산재발견

## '제주 상징 건축물'...수백 년간 구심점 역할

[1 관덕정-보물 322호] 일제 강점 때 잘린 처마 복원 '도민 자존심 회복'

데스크승인 2014.01.02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문화재는 인간 삶의 결정체이자 정체성의 뿌리다. 문화재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거울이다.

한라산의 품에서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바람 센 땅과 파도 거친 바다를 일궈낸 제주의 선조들. 그들의 삶이 오롯이 투영된 문화재에는 내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원동력이 깃들어 있다.

제주일보는 새해를 맞아 문화재의 재발견을 통해 제주의 혼과 슬기를 조명한다. 천연기념물을 제외한 국가 지정 보물과 사적, 제주도 지정 유·무형 문화재 가운데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관덕정(觀德亭)은 조선 전기에 지어진 제주도내 최고(最古)의 건축물이다. 제주성 안에 위치했던 조선시대 건물 중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 건조물 유적의 상징이다.

관덕정은 세종 30년(1448) 제주안무사 신숙청에 의해 병사들의 무예 수련을 위한 훈련청 용도로 창건됐다. 정면 5칸과 측면 4칸에 팔작지붕으로 지어진 단층 목조 건축물로, 건물 앞에는 1963년에 지정된 '보물 제322호'라고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관덕(觀德)'은 예기의 '射者所以觀盛德也(사자소이관성덕야)'란 문장에서 따왔다.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일이라는 뜻이다.

창건 때 '觀德亭' 현판은 소문난 명필이던 세종대왕의 셋째아들 안평대군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시장 격인 한성부판윤을 지내던 제주 출신 고득종이 안평대군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판은 화재로 소실됐고, 현재 글씨는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가 썼다.

관덕정 내부의 서쪽 들보에는 '耽羅形勝(탐라형승·탐라에서 가장 뛰어난 곳)'과 '湖南第一亭(호남제일정·호남지역에서 제일가는 정자)' 등 편액이 걸려 건물의 위용을 웅변하고 있다.

탐라형승 편액은 정조 4년(1780) 제주목사 김영수가 썼고, 호남제일정 편액은 고종 19년(1882) 제주방어사 박선양이 휘호했다.

'호남제일' 편액은 전국에 5개가 있다고 전해진다. 관덕정의 것을 뺀 4개는 전북지역에 있다. 남원 광한루의 '호남제일루'와 전주 풍남문의 '호남제일성', 전주에 세워진 '호남제일문', 정읍 피향정의 '호남제일정'이다. 관덕정의 '호남제일정'이 피향정의 것보다 앞서 제작됐다.

이밖에도 상산사호와 취과양주굴만헌,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진중서성탄금도, 홍문연, 십장생도 등 작자 미상의 그림 여섯 점이 관덕정 내부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관덕정은 여러 차례 중수됐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는 일본인 도사(島司) 전전선차(前田善次)에 의해 보수됐는데, 관덕정의 처마가 2척이나 짧아지고 문이 달려 정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처마 훼손의 이유는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이란 설이 있는가 하면 당시 도시계획선에 저촉돼 잘렸다는 설도 있다.

현재 관덕정은 처마가 원래 길이인 15척으로 복원되고 정자의 모습도 회복한 상태다.

2003년 12월 문화재청은 27억원을 들여 관덕정 처마를 복구하는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나서 2006년 8월에 완료했다. 단순히 관덕정 외형의 복구를 넘어 일제 강점으로 상처받았던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옛 건물을 이루던 목재와 기와 등 부재는 제주목 관아에 보관돼 있다.

수백 년간 제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온 관덕정. 최근 찾은 관덕정은 새들의 배설물 오염을 막기 위해 천장을 따라 그물망으로 쳐져 있었다. CCTV와 소화기, 화재 경보센서 등도 설치돼 무단 침입이나 화재 등에 대비하고 있었다.

원도심의 쇠락 때문일까. 관덕정은 예전 인파로 넘쳐나던 화려했던 시절은 온데간데없이 쓸쓸한 모습이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건축학부)는 “관덕정의 진정한 복원은 건물의 원형 찾기를 넘어 앞마당이 도민에게 되돌려져 제주의 역사적·정신적 광장이란 기능이 회복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며 “제주목 관아와 제주성 복원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mailto: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